

코로나19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영향

김규철 |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kyoochul@kdi.re.kr

I. 서론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였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 1분기 이후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인 대유행 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1월 중반 기준, 전 세계의 확진자 수는 1억 명에 육박하였으며, 사망자도 210만 명을 넘어섰다.

북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공중 보건 방역 체계가 취약한 북한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통제하려 하였다. 국경 봉쇄와 지역 간 이동 제한 같은 강경한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으나, 북한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대외부문 및 장마당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전부터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을 외쳐왔으나 석유 등 필수 중간재의 공급은 여전히 대외무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경 봉쇄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이 부족하게 되어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비공식부문이 위축되면 북한경제의 활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강화되어 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벌써 수년째 지속되어

1) 코로나 라이브(<https://corona-live.com/>, 검색일: 2021. 1. 22).

왔다. 대북제재라는 걸림돌이 해결되기도 전에 코로나 사태가 북한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 모두 대외부문이 시발점이 되어 북한경제에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주요 품목 대외거래를 금지한 대북제재나 국경 봉쇄를 통해 인적, 물적 교류가 중단된 코로나 사태 모두 북한의 대외무역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0년 북한의 대외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대외교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대중국 의존도는 심화되었다. 이에 북한의 대외무역은 곧 대중국 무역으로 치환되었다. 따라서 북중무역에 대해 개괄하고, 주요 수출입 상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대중국 무역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북중무역 외에도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무역액 기준으로 북러무역은 북중무역의 일부밖에 되지 않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대외교역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교역 역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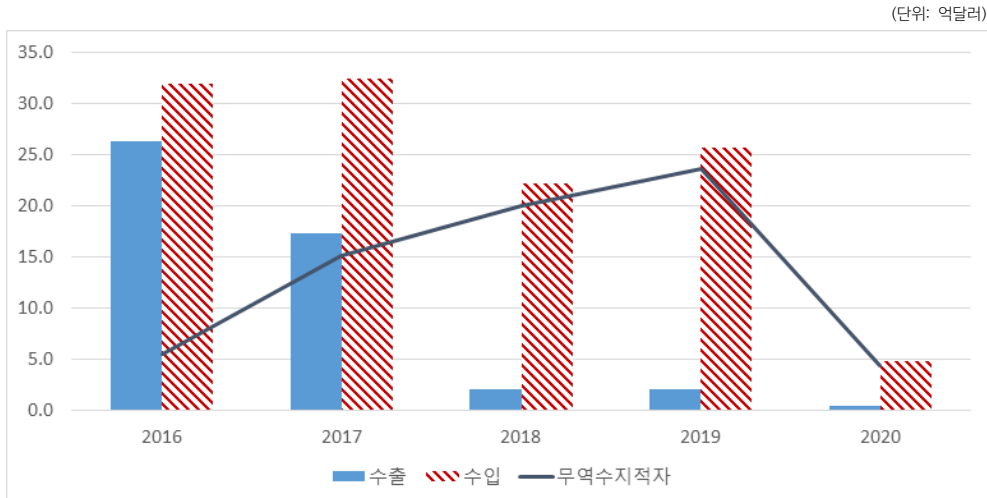
II. 2020년 북한의 對중국 무역

1. 북중무역 개괄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 교역국이던 일본, 한국과의 교역이 납북자 문제, 핵실험, 군사적 충돌 등의 문제로 중단되면서 북한의 교역 상대국은 중국으로 한정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급상승하여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중국이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게 되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부터 소수 존재하던 중국 외의 교역국들도 점차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하게 되었고, 2016년 이후로는 ‘북한의 대중국 무역이 곧 북한의 대외무역’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게 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의 대중무역 규모는 [그림 1]을 통해 확인된다. 2016년 북한의 대중수출과 수입 규모는 각각 26.3억달러, 31.9억달러였다. 2017년에는 북한의 대중수출이 17.3억달러로 34%나 감소한 데 반해, 대중수입은 32.5억달러로 소폭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북한의 대중수출이 2.1억달러로 전년 대비 88%나 감소했고, 대중수입은 수출보다는 감소폭이 적긴 하지만 약 10억달러가 감소한 22.2억달러로 나타났다. 2019년 북한의 대중수출은 2.2억달

[그림 1] 북한의 대중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 적자



자료: 2016년은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검색일: 2021. 1. 22),
2017년 이후는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1. 1. 22).

리, 대중수입은 25.7억달러로 2018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최근 4~5년 사이 북중무역, 그중에서도 북한의 대중수출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UN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던 무연탄, 철광석 등 광산물과 수산물 및 임가공 의류의 거래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대중무역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을까?

2020년 북한의 대중무역액은 수출의 경우 0.5억달러, 수입의 경우 4.9억달러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수출은 78%, 수입은 81% 감소한 것이다. 2019년 북한의 무역은 일반적인 경제상황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일컬어지는 경제제재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제재 이후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90%나 감소하는 등 북한의 무역은 큰 충격을 받았다. 2020년 북한의 무역은 대북제재라는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80% 더 줄어든 2차 충격까지 더해져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미친 영향은 비대칭적이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 거래를 금지했기 때문에 제재 이후 북한의 수출액은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북한의 수입은 기계류 및 석유제품 등 몇몇 품목만이 제재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에 반해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준 충격은 대칭적이었다. 국경 봉쇄는 상품의 이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수출, 수입 상관없이 운송이 필요한 상품은 모두

유사한 수준의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보자. 북한의 무역을 시점에 따라 대북제재 이전 시기(2015~16년)와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은 시기(2018~19년), 그리고 대북제재와 코로나의 이중고를 겪은 시기(2020년)로 나누어 보면 제재와 코로나의 영향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제재 이전(2015~16년의 평균치)과 제재 이후(2018~19년의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대중수출은 대북제재로 인해 92%나 감소했으나 북한의 대중수입은 22% 정도만 감소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2020년(제재와 코로나의 이중고)과 2018~19년의 평균치(제재 이후)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출은 78%, 수입은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준 대북제재와는 달리 코로나 사태는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에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을 통해 북한의 무역수지에 관한 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대북제재 이후 더 크게 늘어났다. 제재 이후 북한의 대중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의 상품수지 적자는 2016년 5.6억달러에서 점차 증가해 2019년에는 23.6억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북한의 수출이 대북제재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0년 북한의 무역수지 상황은 이전에 비해 긍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2년 연속 20억달러 이상이던 무역수지 적자가 4.4억달러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해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해 개선된 것이므로, 2020년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든 것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재 이후에도 안정되던 장마당 환율이 2020년 4분기 이후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크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북한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달러나 위안화의 환율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었다. 2020년에는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오히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마당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는 북한 내부의 외화 사정이 공식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외화의 공급과 수요 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

2019년까지만 해도 공식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무역의 규모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은 공식무역은 물론 밀수를 포함한 비공식무역까지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2019년까지만 해도 공식 무역과 비공식무역이 모두 존재했으나 2020년 이후로는 공식무역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비공식무역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식무역과 비공식무역을 포함한 전체 무역규모의 축소는

코로나 사태 이후 공식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밀수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뤄졌던 교역은 북한의 수입보다는 수출일 가능성이 높다.²⁾ 대북제재는 북한의 외화 가득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북한의 수출을 규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는 공식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북한의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고, 이것이 북한 당국의 외화 사정에 경고등이 들어오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중무역의 연도별 현황을 개괄하여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부터 월별 무역액을 통해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무역에 준 충격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그림 2]는 2018년 1월 이후 2020년 12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과 수입액의 추세를 보여준다. 2018년 이후 점차 증가하던 북중무역액은 2020년 2월에 0으로 나타났고,³⁾ 3월부터 6월까지 일부 회복하긴 하였으나 7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어 9월 이후로는 무역액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2] 북한의 월별 대중 수출액, 수입액



주: 1) 수입은 좌변축, 수출은 우변축.

2) 점선은 추세선을 의미함.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1. 1. 22).

2) 『DailyNK』, 「北, 지하자원 中에 밀수출 재개」…코로나에도 밀착 강화, 2020. 05. 13.

3) 중국해관통계에 2020년 1월과 2월의 무역액은 합산되어 제공된다. 북중간 국경이 처음으로 봉쇄된 시점이 1월 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해관 통계에서 제공하는 1월과 2월 합산 무역액을 1월로 간주하였고, 2월에는 무역이 없던 것으로 보았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북중무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림 2]에 나타난 점선은 2018년 2월 이후 2019년 12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에 대한 추세선이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추세선 모두 우상향하고 있어 2018년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의 월별 무역액은 시간이 지나며 증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면 일부 부침은 있었을지 몰라도 북중무역은 증가해 왔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김규철(2020)은 북한 당국과 중국의 정부 및 기업 모두 대북제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북중무역은 증가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우선 북한 당국은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수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제재로 임가공 의류의 수출이 막히자 제재 대상이 아닌 가발이나 손목시계 같은 새로운 노동 집약 상품의 수출을 늘려 왔다. 저렴한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는 접경지역의 중국 기업들은 대북제재로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⁴⁾ 중국의 중앙정부 역시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지킬 유인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고, 북중무역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경제적 유인이 일치하면서 북중 사이의 무역은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 1월에 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서 북중무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020년 3월 이후 라오닝성과 지린성 등 북한과 접하고 있는 중국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북중무역이 재개되는 듯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자 북중무역액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과 11월의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각각 25만달러, 15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바로 전 달인 2020년 8월(1,926만달러)과 9월(1,888만달러) 대중국 수입액과 비교해도 0.8~1.3%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 북한의 수입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보여주는 수치이다. 10월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수입액을 능가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항상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만성적자 상태였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10월과 11월에 단기간이긴 하지만 최초로 대중국 상품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 북한 당국의 외화 보유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경 봉쇄로 인해 교역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수출에 비해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된 시점이 북한 장마당의 환율이 급변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은 북한 당국의 외화 보유 사정이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4) 『VOA』,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지속…의류공장, 건설현장 등 중사」, 2020. 11. 24.

2. 주요 상품별 분석

가. 북한의 대중수출품

본 소절에서는 주요 상품별로 2020년 북중무역의 특징을 분석한다. 우선 북한의 대중수출 상품에 대해 살펴보자. <표 1>은 2020년에 북한이 중국에 많이 수출한 1~6위 상품이 무엇인지, 해당 상품의 수출액과 수출 비중은 얼마인지, 해당 상품의 2019년 수출액과 점유율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2019년 대비 2020년 수출액의 비율은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2020년도에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상품은 ‘전기 에너지(HS 2716)’로,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24.7%인 1,185만달러로 나타났다. 이 규모는 해당 상품의 2019년 수출액인 1,143달러와 큰 차이가 없다. 북한은 북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압록강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선을 통해 일부 중국에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따라서 전기 에너지는 코로나 상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대면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수출액이 크게 줄어든 다른 상품과 달리 전기 에너지는 2020년에도 수출액이 거의 유지된 것이다. 전기 에너지 외에도 수출액이 많았던 2019년에는 전기 에너지의 수출 비중이 5.3%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상품 교류가 어려워지자 2020년에는 최대 수출품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2위 수출품은 ‘합금철(HS 7202)’로 확인되었는데, 2020년의 수출액은 1,073만달러로 2019년 수출액인 3,105만달러에 비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 합금철은 대북제재 이후에 전체 대중수출액의 14% 정도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히 수출되던 상품이었는데, 다른 상품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자 2020년에는 수출비중이 22% 이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표 1>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

순위	HS code	품목	2020년 수출액(비중) (A)	2019년 수출액(비중) (B)	전년 대비 수출액 (A/B)*100
1	2716	전기 에너지	1,185만달러(24.7%)	1,143만달러(5.3%)	104%
2	7202	합금철	1,073만달러(22.4%)	3,105만달러(14.4%)	35%
3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679만달러(14.1%)	4,918만달러(22.9%)	14%
4	2611	텅스텐광과 그 정광	455만달러(9.5%)	1,234만달러(5.7%)	37%
5	9804	기타	340만달러(7.1%)	698만달러(3.2%)	49%
6	6704	가발, 가수염 등	223만달러(4.6%)	3,106만달러(14.4%)	7%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1. 1. 22).

5) 김경술·신정수, 『북·중 전력산업 협력 현황과 전망』, 에너지국제협력 연구 출연사업 정책 19-11,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2020년 북한의 대중국 3위 수출품은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HS 9108)’이다. 이 상품의 2019년도 수출액은 4,918만달러로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도 수출액은 679만달러로 전년 대비 14% 밖에 되지 않았고, 순위도 3위로 내려앉았다. HS 9108을 8단위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품이 전형적인 임가공 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상품은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HS 91081100)’이며, 관련된 수입품은 ‘시계, 손목시계 부품(HS 91149090)’이다. 즉, 이는 북한이 시계나 손목시계의 부품을 수입해 중국에 조립된 완성품을 파는 임가공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두 상품의 거래는 주로 지린성에 한정되어 있다. 여전히 제재 이전 임가공을 통해 의류를 수출하던 북한이 제재 이후 품목만 바꿔 손목시계 조립의 임가공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에 북한이 중국에 4번째로 많이 수출한 품목은 ‘텅스텐광과 그 정광(HS 2611)’으로, 455만달러를 수출했다. 이 수치는 2019년 수출액의 37% 수준으로, 코로나 사태로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상품은 대북제재 이전이라 할 수 있는 2016년까지만 해도 연간 40~50만달러밖에 수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수출액은 2017년에 394만달러로 8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850만, 1,260만달러로 더 증가했다. 제재로 무연탄과 철광석 등 북한의 대표 수출품이 금수조치되자 텅스텐이 새로운 광물성 수출품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상품의 수출 역시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주요 품목 중 5위를 차지한 것은 ‘기타 품목(간소화된 통관절차 중 가격이 낮은 물품, HS 9804)’이다. 이것은 아마도 대규모 교역품이 아닌 인적왕래 중 세관에 신고되는 상품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에는 7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2%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340만달러로 7.1%의 수출 점유율을 기록해 약 50%의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다른 상품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중 ‘가발, 가수염 등(HS 6704)’의 수출액은 223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4.6%를 차지했다. 해당 상품의 2019년 수출액은 3,106만달러(비중은 14.4%)로 상위 2위 수출품이었다. 해당 품목은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HS 9108)’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임가공 형태의 상품으로, 대북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30~6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으나 제재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에 연간 2,000~3,0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해당 상품의 수출액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2020년 북한수출의 특징은 임가공 상품수출의 붕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에 수출 1위, 2위 상품이었던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와 ‘가발, 가수염 등’은 대표적인 임가공 품목이다.

그러나 2020년 해당 상품의 전년 대비 수출액 하락 폭은 각각 86%, 93%나 되었으며, 이는 2020년 북한의 대중수출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북한의 거의 모든 대중수출품의 수출액은 크게 하락하였는데, 대면 접촉 및 운송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 '전기 에너지'는 예외였다.

나. 북한의 대중수입품

2020년 북한의 주요 대중수입품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주요 수출품을 보여주는 <표 1>과는 달리 <표 2>에서 HS code는 2단위로 표기된 것도 있다. 2단위 HS code는 4단위로 표기된 상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상품군을 의미하는데, 수출의 경우 4단위로 표기되어도 품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수입의 경우 특정 상품군의 품목을 다양하게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표를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담배와 담배 대용물(HS 24)'에는 '잎담배와 부산물(HS 2401)', '시가 등(HS 2402)', '기타 담배(HS 2403)'가 포함되어 있는데, 4단위 상품을 각각의 상품으로 구분하면 수입액이 상위 5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을 모두 합쳐 담배 상품군인 '담배와 담배 대용물(HS 24)'로 보면 2번째로 많이 수입한 상품군이 된다. 플라스틱 제품(HS 39) 역시 같은 이유에서 하나의 품목으로 간주하였다.

2020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대두유(HS 1507)'로,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13.4%인 6,583만달러로 나타났다. 2019년 수입액인 1억 2천만달러에 비하면 절반가량 수입한 것이다. 수입 물량도 2019년 11.3만톤에서 2020년 6.5만톤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 2020년 전체 수입액 감소폭인 81%에 비하면 대두유 수입액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2020년 5월에 424만달러를 수입한 이후 수입액이 줄어들다가 10월 이후에는 수입물량이 전무했다.

<표 2> 북한의 대중국 주요수입품

순위	HS code	품목	2020년 수입액(비중) (A)	2019년 수입액(비중) (B)	전년 대비 수입액 (A/B)*100
1	1507	대두유	6,583만달러(13.4%)	1억 2,197만달러(4.7%)	54%
2	24	담배와 담배 대용물	3,926만달러(8.0%)	9,209만달러(3.6%)	43%
3	39	플라스틱 제품	3,584만달러(7.3%)	2억 7,310만달러(10.6%)	13%
4	1101	밀가루	3,548만달러(7.2%)	7,318만달러(2.8%)	48%
5	1701	설탕	3,188만달러(6.5%)	3,924만달러(1.5%)	81%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1. 1. 22).

다음으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담배와 담배 대용물(HS 24)’이다. 2019년에는 9,209만달러를 수입했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3% 수준인 3,926만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 역시 80% 가까이 줄어든 전체 수입보다는 감소세가 크지 않은 편이다. 품목 분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잎담배와 부산물(HS 2401)’, ‘시가 등(HS 2402)’, ‘기타 담배(HS 2403)’ 모두 코로나 이후 수입이 감소했다. 또한 2020년 9월까지만 해도 211만달러나 되던 담배 수입액이 10월 이후로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의 3위 수입품은 ‘플라스틱 제품(HS 39)’으로, 전체 수입액의 7.3%인 3,584만달러의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플라스틱 제품은 ‘에틸렌(HS 3901)’, ‘프로필렌(HS 3902)’, ‘스티렌(HS 3903)’, ‘염화비닐(HS 3904)’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플라스틱 상품의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은 2019년에 비해 87%나 줄어들어, 81%인 전체 수입액 감소 비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제품은 주로 건설 부자재로 활용되는데, 2011년 이후 1억달러 이상 꾸준히 수입되어 왔으며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2017년 이후로도 2억달러 이상의 수입액을 기록한 상품이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북한 내부의 건설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소비재인 ‘밀가루(HS 1101)’와 ‘설탕(HS 1701)’이 2020년 북한의 대중수입 4위와 5위 상품으로 나타났다. 밀가루와 설탕의 수입액은 각각 3,548만달러, 3,188만달러로 전년 수입액의 48%, 81% 수준이다. 쌀, 옥수수 등 식량 작물의 대체재로 활용 가능한 밀가루와 식품 조미료인 설탕의 수입 감소폭이 전반적인 수입 감소에 비해 작았다는 사실은, 이들 품목이 다른 상품보다 더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대두유와 담배도 대표적인 소비재로서 이들의 수입 감소폭 역시 전체 수입 감소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코로나 이후 북한 당국에서 주요 소비재의 수입은 그나마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북한의 상위 수입품은 아니지만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품 중 하나는 ‘편물(HS 60)’이다. 2019년 대중국 수입액이 8,958만달러였는데, 2020년에는 585만달러로 그 규모가 6.5%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이외에도 의류제품과 관련된 상품군인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 편물(HS 61)’,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 편물 제외(HS 62)’, ‘기타 섬유제품(HS 63)’, ‘신발류(HS 64)’ 모두 2020년 대중국 수입액이 2019년 수입액의 5~1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품의 전년 대비 수입 감소폭은 전체 수입 감소폭보다 더 컸는데, 이는 이들 상품의 수입이 다른 상품보다 더

크게 줄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대북제재 이후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던 북한의 의류 관련 산업 활동 및 소비가 코로나 이후 크게 위축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020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에서 눈길을 끄는 상품은 ‘의료용품(HS 30)’이다. 2019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의료용품은 4,559만달러였다. 2020년에는 1,847만달러의 의료 용품을 수입했는데, 액수로 보면 크게 줄었으나 비율로 보면 전체 수입액의 감소폭보다는 크게 줄지 않은 것이다. 아마도 2020년 당 창건일(10월 10일)에 완공 예정이었던 평양종합병원 건립 및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의료용품 수입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용품 중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수입되지 않다가 2020년에만 수입된 품목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체의학용 백신(HS 300220)’으로 6월에 84.5만달러, 9월에 11.4만달러 수입되었다. 물론 이 상품이 코로나 백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수입하지 않다가 코로나가 심각해진 2020년 6월과 9월에 두 차례 수입했다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수입품목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의료용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코로나 사태와 관련이 있는 수입상품으로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포함된 분류 코드인 ‘진단용 시약(HS 3822)’이 있다. 이 상품의 2020년 수입액은 46.7만달러로, 이는 2019년 수입액인 6.9만달러의 6배 이상의 수치이다. 이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에 필요한 물품을 대거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북한의 대중국 ‘비료(HS 31)’ 수입액은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비료(HS 3102)’의 수입은 2019년 9.4만톤(2,994만달러)에서 2020년 1.5만톤(369만달러)로 급감하였고, ‘화학비료(HS 3105)’의 수입 역시 2019년 2.8만톤(1,287만달러)에서 2020년 4천톤(178만달러)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2020년 북한의 비료 도입이 감소한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40만톤으로, 지난 2019년도 생산량인 464만톤에 비해 5.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⁶⁾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쌀(HS 1006)’과 ‘옥수수(HS 1005)’의 수입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북한은 2019년에 중국으로부터 16만톤(7,765만달러)의 쌀을 수입했다. 그러나 2020년의 수입 물량은 1.3천톤(59만달러)으로 전년의 1%도 되지 않는다. 옥수수의 경우도 2019년 2.3만톤(629만달러)을 수입했으나, 2020년에는 1천톤(36만달러)만을 수입해 전년 대비 5%에 그쳤다. 앞서 살펴본 대로 쌀과 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밀가루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48% 수준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2020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에서 다음과 같이 상품별 특징을 정리할

6) 농촌진흥청, 「북한, 올해 식량작물 440만 톤 생산…전년 대비 24만 톤 감소: 2020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발표」, 2020. 12. 18.

수 있다. 첫째, 거의 모든 상품에서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둘째, 대두유, 밀가루, 설탕, 담배 등 기본적인 소비재의 수입 감소폭은 다른 상품의 수입 감소폭보다 작았다. 셋째, 플라스틱 제품, 의류 관련 제품 등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상품의 수입은 전체 수입 감소폭보다 크게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 사태 대응에 필요한 의료용품과 진단 시약 등의 상품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다섯째,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의 수입과 식량의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다.

3. 거래 지역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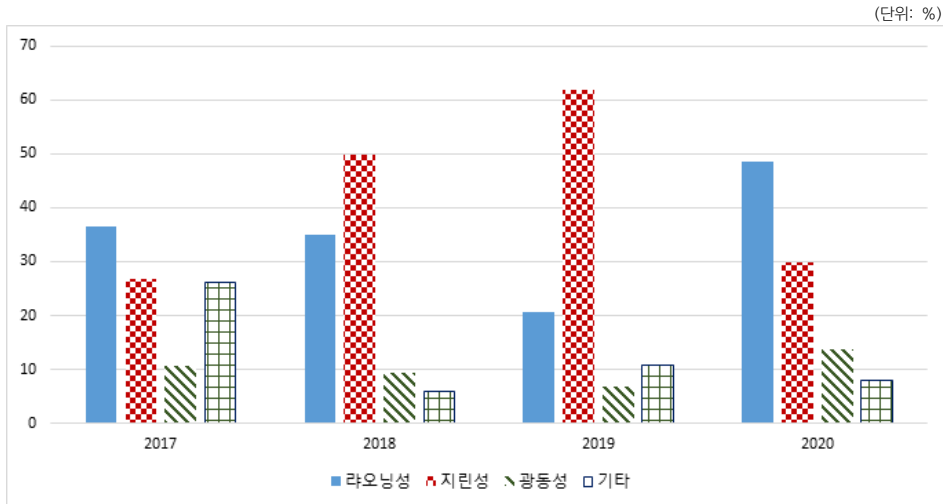
중국의 주요 지역(성)별로 북중무역을 분석해 보자. [그림 3]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북중무역의 성별 점유율 변화를 나타낸다. 먼저 북한 대중수출의 지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주요 수입 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점유율 추이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대북제재 이후 랴오닝성의 점유율은 하락하다가 2020년에 상승하였고, 지린성의 점유율은 이와는 반대로 제재 이후 상승하였다가 2020년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랴오닝성의 북한 수출액 점유율이 하락한 이유는 제재 이전까지 랴오닝성에 집중되었던 임가공 의류(HS 62)의 수출이 대북제재로 인해 2017년 하반기⁷⁾부터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지린성의 점유율이 상승하였는데, 이 시기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 ‘시계와 그 부분품(HS 91)’과 ‘조제 우모 인조제품(HS 67)’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 역시 섬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임가공 형태의 교역상품이나 주로 거래처가 랴오닝성이 아닌 지린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2020년에는 이들 상품의 수출이 급감하고, 합금철, 전기 에너지 등의 품목을 수출하자 랴오닝성과 광둥성의 비중이 올라가고 지린성의 점유율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북한 대중수입의 주요 지역별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대중수출과는 달리 대중수입은 랴오닝성과 광둥성이 1, 2위 지역이다. 랴오닝성의 북한 수입액 점유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2% 정도로 안정적인 데 반해 광둥성의 점유율은 대북제재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에 크게 상승하였다. 2020년에는 랴오닝성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였고, 광둥성의 점유율은 다시 하락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지역별 북한 수입액의 점유율 변화 역시 상품의 구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 이후 수입 비중이 늘어난 ‘대두유(HS 1507)’와 ‘플라스틱 제품(HS 39)’이 광둥성에서 많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광둥성의 수입 점유율이 증가했던 것이다. 2020년에는 랴오닝성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상품인 ‘담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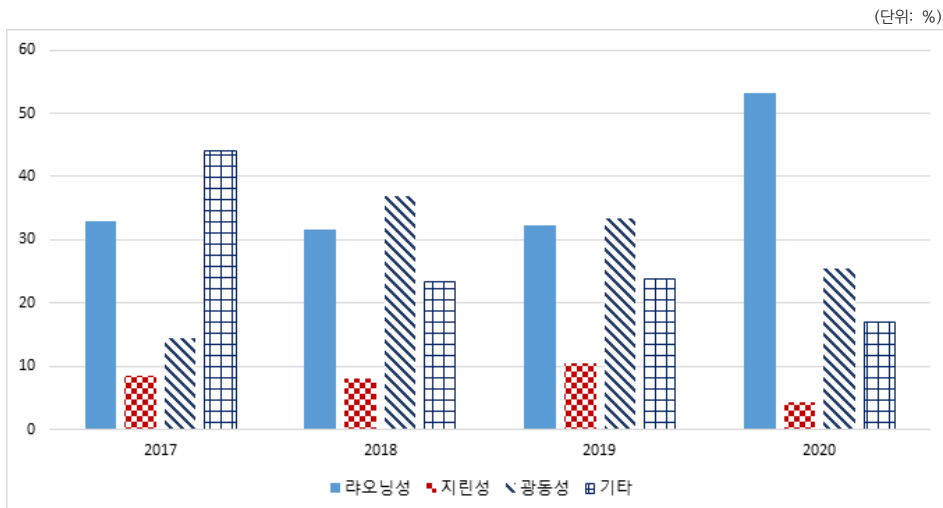
7) 2017년 9월에 결의된 UN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였다.

[그림 3] 중국의 주요 성별 북중무역 점유율

(1) 북한의 대중수출



(2) 북한의 대중수입



담배 대용물(HS 24), ‘밀가루(HS 1101)’, ‘설탕(HS 1701)’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면서 랴오닝성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거래하는 주요 품목은 중국의 거래처가 정해진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 무역에서 중국의 주요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떤 상품을 거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북제재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외부의 충격에 따라 북한의 거래 품목이 바뀌게 되고, 이는 중국의 거래 지역 구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III. 2020년 북한의 對러시아 무역⁸⁾

2000년대 이후로 북한에 있어 무역 상대국으로서 러시아는 중국보다 그 중요성이 크게 떨어졌다. 무역액의 규모나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북한의 대러무역은 대중무역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북제재로 북한의 무역이 크게 위축된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2019년 북한의 대중무역규모는 약 28억달러였으나 대러무역규모는 북중무역액의 1/56 수준인 5천만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북중무역규모는 11월까지 5.3억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줄은 반면, 2020년 북한의 대러무역액은 10월까지 4천 3백만달러인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에도 여전히 무역의 규모로 보면 북한의 대러무역은 대중무역의 8%밖에 되지 않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무역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는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북한의 대러 수출액, 수입액 및 무역수지 적자 추이를 보여준다. 북한의 대러무역 역시 대중무역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났다. 물론 무역규모가 대중무역에 비해 작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의 규모도 작은 편이다. 2020년 북한의 대러수출액은 10월까지 69만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8%나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10월까지 북한의 대러수입액은 4,225만달러로 2019년 10월까지의 수입액인 4,042만 달러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북한의 대중무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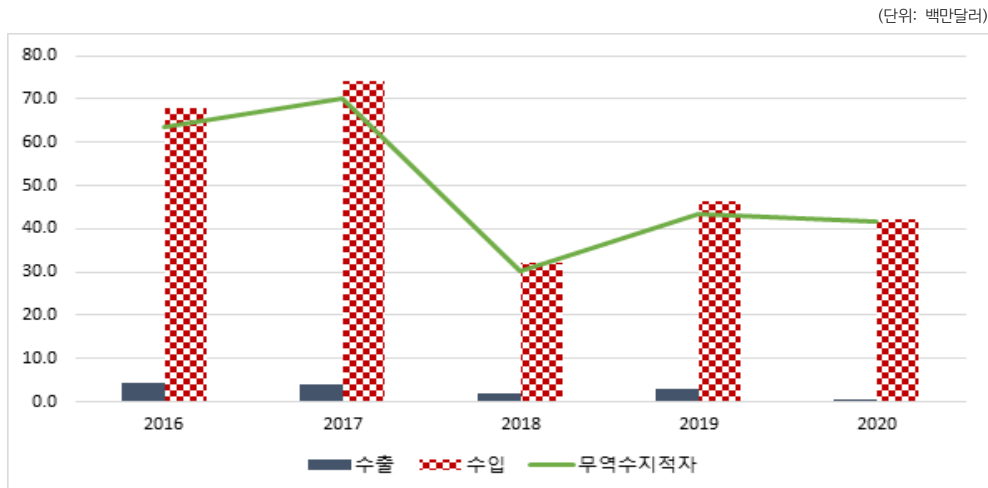
그렇다면 북한의 대러수입은 왜 크게 감소하지 않았을까? <표 3>을 통해 2020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주요 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밀(HS 1001)’이었다. 북한은 2019년 375만달러의 밀을 수입했으나 2020년에는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019년보다 4배 많은 1,538만달러의 밀을 수입했다.

8) 러시아의 무역 통계는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를 활용하였으며, 2021년 1월 중순 기준으로 2020년 10월까지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밀가루(HS 1101)’는 2020년도 상위 5위 수입품은 아니었으나 수입액은 212만달러로 2019년의 342만달러에 비해 38% 정도 감소했다. 밀과 밀가루의 수입액을 합쳐보면 2020년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식량은 2019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⁹⁾

2020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2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정유제품(HS 2710)’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에는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인 2,475만달러나 수입하였는데, 2020년에는 크게 줄어 970만달러만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러 주요 수입품(1~5위 상품) 중 유일하게 지난해 대비 수입액이 줄어든 품목이다.

[그림 4] 북한의 대러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 적자



주: 2020년은 1~10월까지의 무역액에 근거하여 작성함.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검색일: 2021. 1. 22).

<표 3> 북한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품

순위	HS code	품목	2020년 수입액(비중)	2019년 수입액(비중)	2019년 대비 2020년 비율 (수입액)
1	1001	밀	1,538만달러(36.4%)	375만달러(8.1%)	410%
2	2710	정유제품	970만달러(23%)	2,475만달러(53.4%)	39%
3	1507	대두유	430만달러(10.2%)	422만달러(9.1%)	102%
4	3004	의약품	368만달러(8.7%)	250만달러(5.4%)	147%
5	1701	설탕	256만달러(6%)	8만달러(0.2%)	3,408%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검색일: 2021. 1. 22).

9) 2020년 10월까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밀과 밀가루 외에 쌀, 옥수수 등 수입하지 않았고, 귀리(HS 1004)는 11,000달러 수입했다.

식품 소비재의 대표품목인 ‘대두유(HS 1507)’와 ‘설탕(HS 1701)’이 북한의 대러 3위, 5위 수입상품으로 나타났다. 대두유 수입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설탕은 지난해 8만달러밖에 수입되지 않았으나 2020년 10월까지 256만달러로 지난해의 34배 이상을 수입해 5위에 올랐다. 북중교역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두유와 설탕은 북한의 주요 수입품이었으며, 수입액의 하락폭이 다른 상품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이 러시아와의 교역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수입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로부터의 ‘의약품(HS 3004)’ 수입액은 2019년 250만달러에서 2020년 368만달러로 47% 정도 증가했다. 이 품목 역시 대중수입액이 줄긴 하였으나 하락폭이 다른 품목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의약품 수입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20년 북한의 대러수입 역시 대중수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상품의 수입이 줄어든 반면, 식품 소비재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으며, 의약품의 수입 역시 크게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수입에서는 이러한 품목들의 수입 감소폭이 다른 품목들의 감소폭보다 작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러수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0년 북한의 수입은 식품, 의약품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020년도 북한의 대러수출액은 약 70만달러로 매우 미미했으며, 관악기(HS 9205)가 38%, 플라스틱 필름(HS 3920)이 27%, 의자와 그 부분품(HS 9401)이 18.2%를 차지하는 등 큰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

V. 결론

2020년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코로나 사태는 북한의 대외교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로 이미 상처 입은 북한의 대외교역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붕괴에 이르게 되었다. 대북제재 이후 크게 증가한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교역 자체가 감소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북제재 이후에도 안정되어 있던 장마당의 환율이 코로나 사태 이후 변동성이 커졌다. 이는 공식적인 교역을 통한 외화의 공급과 수요 외에 장마당 환율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아마도 제재 이후에도 존재하던 밀수 등 비공식 교역이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 봉쇄로 막히게 되면서

북한의 외화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이후에는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극단적으로 감소해 단기간이지만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 시점이 장마당의 환율 변동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외화 사정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북한의 수출은 임가공 상품의 붕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대북제재 이후 의류를 대신하여 휴대용 시계, 가발 등 새로운 임가공 상품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하였는데, 2020년에는 해당 상품의 수출이 90%나 하락해 수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 집약도가 높은 임가공 상품의 수출이 악화됨에 따라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주민들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민들의 소득 악화로 이어져 구매력 하락 등 북한 내부의 경제 위축과도 직결될 수 있다.

북한의 대중수입 역시 거의 모든 상품군에서 크게 하락했으나, 대두유, 밀가루, 설탕, 담배 등 식품, 소비재의 수입 감소폭이 다른 상품의 감소폭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당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용품의 수입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전의 주요 수입품이었던 플라스틱 제품과 편물 등 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북한의 중간재 수입 감소는 해당 상품의 투입이 필요한 건설이나 임가공 산업 등의 생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재, 의료용품 등 코로나 대응을 중심으로 개편된 2020년 북한의 수입 구조는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에서도 확인되었다.

2021년 북한의 대외무역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상품 교역이라는 특성상 물류의 이동 및 대면 접촉이 필수적이므로 무역의 활성화와 바이러스의 전파는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고, 언제 봉쇄가 해제될지 기약이 없다. 겉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고 천명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북한도, 외부의 관찰자들도 알고 있다. 외부와 교역을 하지 않고 폐쇄된 경제를 유지한 채 경제발전을 이룬 사례는 찾기 어렵다. 결국 북한은 국경 봉쇄를 해제하고 대외무역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 등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 백신이 개발되었고 실제 접종도 이뤄지고 있으나,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한국도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북한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대외무역을 포함한 북한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어떠한 충격을 받게 될지 주목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경술·신정수, 『북·중 전력산업 협력 현황과 전망』, 에너지국제협력 연구 출연사업 정책 19-11,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김규철, 「코로나 이후 북중무역의 변화와 주요 이슈」,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경남대학교 출판부, 2020.

「북한, 올해 식량작물 440만 톤 생산…전년 대비 24만 톤 감소: 2020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발표」,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0. 12. 18.

『DailyNK』, 「北, 지하자원 中에 밀수출 재개…코로나에도 밀착 강화」, 2020. 5. 13.

『VOA』,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지속"…의류공장, 건설현장 등 종사」, 2020. 11. 24.

<웹사이트>

코로나 라이브(<https://corona-live.com/>, 검색일: 2021. 1. 22).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검색일: 2021. 1. 22).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1. 1. 22).